

전세 사기 피해지원... 예산집행률 1% 뿐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제도 재검토 필요” 지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주당·비례)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세 사

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현황이 1%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끊임없는 요구와 간곡한 요청에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인천지역 내 모든 주거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선행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

책이 피해자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원의 예산 중 704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

다”면서 “예산 집행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과 정책에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SNS 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중삼 기자

반입폐기물 성상개선 간담회 가져

수도권매립지, 애로사항 청취 담당공무원·업체대표들 참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1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에서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및 운반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 담당 공무원과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상개선 우수 사례 공유, 폐기물 하역검사 체험, 성상개선 방안 토의와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 중구, 안산시와 안양시 등이 대표로 성상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 대상 홍보 계도와 현장 견학, 수거업체를 통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한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현재 매립 중인 제3-1매립장에서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관찰하고 검사해보는 체험을 진행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및 운반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제3-1매립장에서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관찰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매립지)

안성시 박한빈 주무관은 “역할을 바꿔서 직접 폐기물 검사를 체험해 보니 분리배출 실태와 필요성을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학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은 “그간 지자체와 운반업체의 노력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친환경 매립장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지속

적으로 마련해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반입폐기물 성상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안테나

인천시,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설치

인천시가 월미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부평구 신트리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 각 1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인천시는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시는 자체 개발한 어플(포플·PUFPOOP)과 자판기·수거함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동행 플랫폼’을 운영한다.

포플 앱에 가입 후 자판기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친환경 배변봉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배설물을 담아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과 만족도 조사 후 불편 사항을 최종 보완해 내년 2월에 9개 공원, 총 13대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중삼 기자

인천사서원,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의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중앙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으로 전국 사서원이 진행 중이다. 정부 지원 바우처로 가사·간병인,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시설 중 품질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인천은 모두 6곳이 참여한다.

컨설팅은 남석우 살뜰원 사무국장 등 전문가 2명과 전태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대학교수 4명이 참여했다. 전문가와 교수 2명이 한 조를 이뤄 직접 시설마다 2차례 방문한다.

1차로 중앙사서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품질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2차 컨설팅에선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 개선사항을 살핀다.

최근 미추홀구 A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컨설팅을 진행한 남석우 사무국장은 “지금도 우수하지만 관점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니 평가 지표에 맞게 작성해 잘하는 내용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지출 장부 관리, 세입·세출 결산서, 필수 교육 등 평가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항을 점검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백령 해역에 어린 참돔치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연안 오염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패류(조개류)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토종 홍합 ‘참돔치’ 80만 마리를 21일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 해역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참돔치는 지난 3월에 건강한 어미로부터 산란 자국을 통해 수정란을 채란한 약 220일 동안 사육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껍질 높이(가고) 5~15mm 크기의 우량 종패들이다.

참돔치는 육질이 두껍고 단단해 다른 참치에 비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크기가 매우 크고 공급량이 많지 않아 1kg당 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 노력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지역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유해물질에 민감한 생물종을 이용해 수계로 유입되는 물질의 독성을 평가해 관리하는 제도로 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에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만1600종이며 6억 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은 일일이 감시할 수 없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태독성 평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폐수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 산업폐수에 대해 생태독성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물 환경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해 원인분석과 대응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생태독성 모니터링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친수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물류의 날’ 개최... 물류인들 자긍심 높여

인천시, 정책 컨퍼런스 ‘물류발전 대상’ 시상도

인천시가 22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3년 인천시 물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행정부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물류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인천시 물류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학·연·관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1부 물류정책 컨퍼런스와 2부 인천시 물류의 날 기념식으로 구성됐다.

먼저 ‘Rethink : 혁신 & 물류’를 주제로 개최된 물류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김진우 PwC컨설팅 상무가 기조강연을 맡아 ‘물류환경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국제물류와 도시 물류 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시상식도 개최됐다.

물류발전대상은 지역 경제와 물류 발전에 공헌한 우수기업과 개인·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매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 물류대상의 기업부분에는 ‘본상’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 ‘특별상’ 동일특수화물(주)가 수상했으며 개인부분에서는 ‘본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용 물류처장 ‘특별상’ (주)비이투비 권민구 이사가 수상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 분야로 성장한 물류산업은 이제 첨단기술과 융합한 미래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일상 편익을 향상시키고 있는 물류산업 종사자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형 인공지능 교통서비스 홍보

인천시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서 지능형 교통상황 관리시스템 및 부평역 로봇친화 서비스도 소개

인천시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해 인천형 인공지능(AI) 교통서비스를 홍보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 가는 슬로건’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총 99개 기관이 참가한다. 범정부적 디지털 혁신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행사로 개막식, 전시부스,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이 열린다.

인천시는 ‘교통서비스, 인천이 AI로 선도합니다’를 주제로 인천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전시 부스를 운영해 첨단기술 기반 지능형 교통상황 관리시스템(ITS)과 인천 1호선

부평역의 로봇친화 첨단서비스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인천시는 지능형 교통상황 관리시스템(ITS)의 다양한 교통정보 수집을 통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상황관리 및 인공지능(AI) 신호 최적화 시스템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앞서 이달 초 행안부가 주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민 안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부평역에 도입한 △안내로봇·제빵로봇·바리스타로봇 등 공공서비스로봇 △웨어러블로봇·물류배송로봇 등 업무보조 로봇을 소개한다.

특히 부평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 발로 걷는 감시정찰로봇(SPOT)을 직접 관찰하고 조종해 볼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에게 디지털 혁신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중삼 기자

인천 위치한 국제기구 인천과 상생발전 논의

GCF 등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 4년 만에 개최해 APEC 인천유치 등 상생 논의

인천시가 22일 송도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2023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인천시와 국제기구의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유정복 시장과 고기영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원장, 제이슨 알포드(Jason Allford) 월드뱅크(World Bank Korea Office) 한국사무소장을 비롯한 인천시에 위치한 11개 국제기구 대표와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인천대학교 등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는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노력에 대한 소개와 상생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구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제사회와 인천의 미래를 위해 우수한 인천 지역의 인재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대한 국제기구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위해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제기구 대표들은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국제회의의 인천 개최 및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나



인천시가 22일 송도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2023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인천시와 국제기구의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인천시)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 국제기구로는 최초로 지난 2006년 유엔 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UNAPCICT)가 송도에 자리 잡은 이후 지난해 기후기술센터 협력연락사무소(CTCN)에 이르기까지 현재 총 15개 국제기구가 자

리 잡고 있다.

인천 국제기구협의체는 지난 2014년 7월에 인천시와 지역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들로 구성돼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안중삼 기자